

에너지 지산지소 RE100 복합도시 중심, 영암

자치CEO

우승희
영암군수



지난 10일 대통령실이 RE100특별법 제정을 공식화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업 규제 제도, 파격적 교육·정주 여건, 송배전망 비용 감축과 전기요금 차등제를 포함한 정부의 RE100 산업단지와 에너지 신도시 계획을 환영한다.

RE100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는 시대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RE100의 핵심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체계다.

이제 지방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방식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지로 기업이 찾아오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업이 지역으로 옮기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쓰며 RE100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국가도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에너지 고속도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송배전망 건설에 따른 주민 반대와 여러 난관이 예상되는 해저케이블 건립 고민도 덜 수 있다.

현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는 수도권으로 보낼 전력망이 부족해 2031년까지 전력계통 접속이 제한돼 있고, 추가 생산된 전기는 버려지고 있다. 따라서 RE100특별법 제정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을 가속할 것이다. 이미 제정된 분산에너지법은 생

산기업과 소비기업의 전기 직거래를 허용하고 있어서 재생에너지 지산지소를 뒷받침하고 있다.

RE100특별법은 최고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행정기관 이전 중심이었던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시즌1은 공무원만 지역에 내려오고 가족은 서울에 사는 한계로 나타났다. 국민주권정부에서 진행될 혁신도시 시즌2는 기업 이전이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RE100 복합도시로 완성돼야 한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전력 소비는 많고, 일자리는 적은 데이터센터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첨단기업이 RE100을 목표로 지역에 오기를 고대한다.

RE100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초광역권 특별자치도 공약과 이어진다. 호남권을 에너지 중심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만들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성장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서남권은 양질의 햇빛과 바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RE100 산단의 최적지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호남권 초광역 경제권의 한 축이 되고,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의 든든한 배후지다. RE100특별법이 국토균형발전 전략과 결합해 서남권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을 확신한다.

대통령실이 파격적 교육·정주 여건을 밝혔듯이, RE100 산단은 재생에너지 복합도시 조성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RE100 기업 이전으로 일자리가 생기고,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시민의 주거·문화·의료·복지 등 기본사회 욕구가 채워지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인재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대전환은 화석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넘어선다. 산업혁명 이후 200여 년을 주도했던 화석연료와 대량생산 대량소비,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는 방식의 전환까지를 의미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RE100 산업단지 입지 여건으로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만 낙후된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것은 에너지 대전환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적절하다.

영암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은 재생에너지 지산지소를 가장 빨리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이다. 서남권 경제의 심장부인 대불국가산단은 서남해안 해상풍력 기지재 배후산단이자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소비처다. 해상풍력 구조물과 기지재까지도 재생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RE100 산업단지 전환이 바로 가능하다.

대불국가산단은 이미 에너지 자급자족과 공공형 VPP(통합발전소)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남권에 저렴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업도시 삼포지구에는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자원순환 청정수소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영암호와 간척지는 태양광 집적화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삼호읍 나불도 인근 광활한 부지에는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수도권의 글로벌 기업이 이전하여 추가 RE100 산단을 조성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영암 지역 공약인 복합도시 조성으로 일자리·주거·교육 등이 어우러지면 서남권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실현의 최적지로 손색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장 빨리 실현할 수 있는 영암군의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RE100 복합도시 조성 사업'을 주목해야 할 이유다.



기고 김홍규 광주 북부소방 119구조대 소방장

도심 집중호우, 반복되는 위험에서 나를 지키는 법

매년 여름이 되면 예외 없이 반복되는 것이 있다. 바로 '도심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다. 최근 5년 동안 서울, 대전, 부산, 청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급격한 강우로 인해 인도 침수, 맨홀 실종, 차량 고립, 반지하 주택 침수 등의 사고가 반복됐다. 특히 2023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14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가며 우리 사회에 깊은 경각심을 안겼다.

도시라는 공간은 구조적으로 많은 지하 시설과 좁은 배수 체계를 품고 있어 강수량이 단기간 집중될 경우 더욱 위험하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과 수도권, 부산 등에서는 폭우 시 열린 맨홀에 빠져 실종되거나, 인도에 있던 시민이 물살에 휩쓸리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특히 물에 잠긴 맨홀은 외관상 전혀 구분되지 않으며, 강한 유속이 형성될 경우 보행자가 균형을 잃게 되어 맨홀 구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야간에는 우산 대신 우비를 착용해 시야를 확보하고 침수된 인도나 도로는 무리하게 건너지 않아야 한다. 만약 물에 잠긴 길을 건너야 한다면 지팡이나 우산으로 지면을 확인하면서, 급격적 2인 이상 함께 이동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는 보호자의 도움 없이 침수 구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지난 2022년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 침수,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침수, 2024년 군산 차량 급류 사고 등은 도심 내 지하

공간에서의 침수 고립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준다. 집중호우는 단 몇 분 사이 지하공간을 잠기게 하고, 차량은 순식간에 물에 잠긴다. "차량 안이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호우 예보나 경보가 있을 경우, 지하차도·지하주차장·반지하 공간 진입을 자제한다. 그리고 차량은 미리 고지대로 옮겨 주차하고 지하차도 및 지하주차장에서 이동 중 차량 바퀴의 절반이 잠기게 되면 배기구가 잠기게 되며 물로 인해 엔진이 멈추고 수압으로 인해 문을 열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차에서 내려 신속히 탈출해야 한다.

그리고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침수 조짐이 보이면 즉시 전기 차단 후 집에 물이 들어오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현관문 앞 발목(30cm) 이상 물이 들어차게 되면 문을 열기 어려워지며 무릎(50cm) 이상 물높이가 되면 수압으로 인해 탈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난은 예고 없지만, 대비는 할 수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도시 집중호우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위험은 반복되지만, 피해는 반복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시민 각자의 경각심, 이웃 간의 관심, 그리고 지자체의 사전 통제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같은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도시 속 집중호우,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 사고를 막는 첫 단추는 '관심'과 '준비'에서 시작된다.

독자투고

소비쿠폰 사칭 스미싱 주의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해 대상 여부, 금액, 카드 승인, 충전 등 안내 메시지를 가장한 뒤,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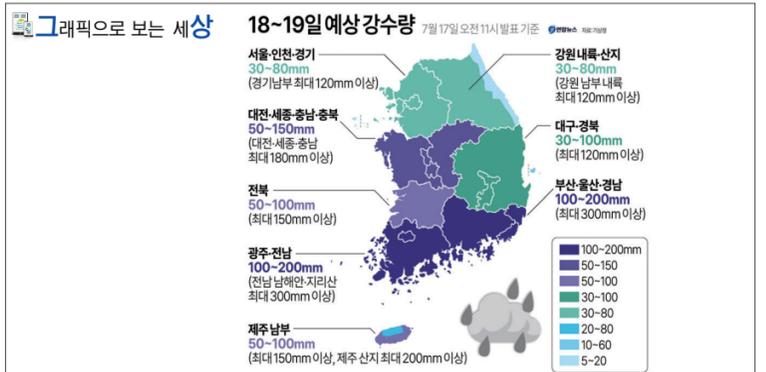
는 범죄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카드사는 신청 안내 시 링크(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원칙적으로 발송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노린 범죄자들의 조직적 시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하길 당부한다. 첫째, 발신인이 불분명하거나 URL이 포함된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 둘째,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앱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118센터(전화 118)로 신고할 것. 셋째, 앱, 홈페이지, 주민센터 외의 비공식 경로는 일절 이용하지 말 것.

2025 소비쿠폰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정책이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악용하려는 스미싱 사기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채널만을 이용해 안전하게 신청해서 민생지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진병진 <여수경찰 대경도치안센터 경감>





KITS
KOREA International
TOURISM
SHOW 2025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KITS

제10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2025. 07. 18(금) - 07. 21(월)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



ANNIVERSARY
10
YEARS
2016 - 2025



주최 | 전남일보,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대한민국국제관광박람회조직위원회
주관 | (주)한국전시산업원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고양특례시·한국관광협회중앙회